

오거스턴적 소설: Joseph Andrews 서론

송 낙 현

17세기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이라는 극심한 격동을 겪은 영국은 18세기에 접어들면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거의 한 세기에 걸치는 안정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8세기의 전반은 소위 오거스탄(Augustan)의 시대로서, 영국의 지성인들은 로마 문예의 황금기인 오거스트 황제의 시대가 영국에 재현되었다는 자부심을 품었다. 따라서 희랍, 로마의 문화를 숭상하는 풍조가 딴 어느 때보다 뚜렷했고, 문학에 있어서도 Homer, Virgil 등의 작품과 Aristotle과 Horace의 문학 이론이 이 시대의 문학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오거스턴 시기의 고전주의, 또는 신고전주의 문학관을 Alexander Pope의 “비평론”(An Essay on Criticism)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호오머의 작품을 연구하고 그것을 즐겨라.
낮에는 그것을 읽고, 밤에는 숙고하라.
거기에서 판단력을 이루고 원칙을 얻어 내어.
시의 정신을 그 원천까지 찾아 올라가라.
늘 그 자체와 비교하면서 그의 본문을 숙독하고,
그에대한 주석은 만추어의 시인으로 하라.(124-29행)

Be Homer's works your study and delight,
Read them by day, and meditate by night:
Thence form your judgment, thence your maxims bring,
And trace the Muses upward to their spring.
Still with itself compared, his text peruse:
And let your comment be the Mantuan Muse.

Homer와 Mantua의 시인, 즉 Virgil의 작품들은 주로 영웅 서사시이고, 이것이 최고의 문학으로 인식되었다. 기타 비극, 전원시, 희극, 풍자, 송가 등도 모두 시나 운문이지 산문은 아니었다. 즉 산문은 예술로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소설도 문학으로 인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이 걸으로 표방하는 것과 실제는 다르기 마련이어서, 18세기 영문학에서도 이렇다 할 서사시는 생겨나지 못했고 기껏해야 의사영웅시(mock-heroic)나 풍자시가 번창했을 뿐이었다. 그 대신에 다량의 각종 산문이 쓰여지고 18세기 후반에 들어가서는 Samuel Johnson, Edward Gibbon, David Hume 등의 쟁쟁한 문인들에 의해서 산문의 권위가 확립되었고 소설도 문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8세기 영국이 아무리 안정기에 있었다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무엇인가 변화

420
461h
1083
C-3

가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그 어느 곳이나 시대에도 항구적 안정이란 있을 수 없고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8세기 영국의 사회 변화는 산업과 상업의 발달에 따른 중산 계급의 대두이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독자층이 생겨 났으며, 이들은 상류의 지식층과는 달리 고전문학이나 시의 작품보다 산문으로 된 글에 더 접근하기 쉬웠고,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 및 여행기나 전기와 같은 산문으로 쓰인 책과 더불어 소설, 즉 산문으로 된 꾸며진 이야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8세기에 소설이 탄생했다고해서 그 이전에는 산문의 가공적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그런 것은 존재해 왔다. 고대 희랍에 이미 현대 소설의 선구자라 할만한 얘기, 가령 Aristides의 *Milesiaka*(기원전 2세기)나 Longus가 썼다고하는 *Daphnis and Chloe*가 있었고, 로마 Nero 황제의 시대의 생활상을 보여 주는 Petronius의 *Satyricon*, 중세의 기사 무용담(chivalric romance), 또는 Boccaccio의 *Decameron*도 산문으로 된 이야기라는 범주에 속하며, 주로 Spain에서 생겨났던 소위 악한 소설(picaresque novel)은 거의 소설과 같은 것이었다. 영문학에서는 1484년에 Caxton이 인쇄한 Sir Thomas Malory의 *Le Morte D'Arthur*가 산문으로 되어 있었고 Elizabeth의 시대에도 Sir Philip Sidney의 *Arcadia*, Thomas Nash의 *The Unfortunate Traveler* 등의 산문 소설이 있었고, 17세기 John Bunyan의 종교적 알레고리, *The Pilgrim's Progress*도 소설의 선구자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과 18세기 초에 발생한 소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소설이라고 알고 있는 문학의 범주(genre) 사이에는 그 성격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 또는 특징은 한 마디로 하면 사실주의(realism)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는 여러 다른 문맥 속에서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세상과 인생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고 면밀하게, 그래서 생생하게 재생하려는 문예 사조 및 형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an Watt는 이것을 형식상 사실주의(formal realism)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설이 인생에 대해 이와같이 세밀한 관찰을 표현하는 서술 방법을 형식상 리얼리즘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형식상이라 하는 이유는 리얼리즘이란 용어는 여기에서 어느 특정한 문학적 주의나 목적이 아니라, 다만 일련의 서술상의 절차를 가르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흔히 소설에서 함께 보이고, 딴 문학의 범주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들은 소설의 형식 자체에 특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The narrative method whereby the novel embodies this circumstantial view of life may be called its formal realism: formal, because the term realism does not here refer to any special literary doctrine or purpose, but only to a set of narrative procedures which are so commonly found together in the novel, and so rarely in other literary genres, that they may be regarded as typical of the form itself.¹⁾

1) *The Rise of the Novel* (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1972), pp.34-35. Watt가 여기에서 realism에 "formal"이란 말을 부친 이유는, 사회의 어드운 면을 적라라하게 폭로하려는 19세기의 문학 운동인 Realism이나, 계급투쟁이 사회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Social Realism 등과 구별하고, realism이 순전히 소설의 기법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18세기 이전에도 이와같은 리얼리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이였고, 대개는 현실이 미화, 또는 이상화(idealize)되었거나, 등장인물과 그 배경인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이 아니라 막연하며 일반적이였다. 예컨데 *The Pilgrim's Progress*의 등장인물의 이름은 구체적인 성명이 아니라 Mr. Christian, 또는 Mr. Worldly-Wiseman이고, 여행하는 시간도 역사상의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막연하며, 또 그가 여행하는 곳의 지명도 고유명사가 아니라 the City of Destruction, 또는 the Vanity Fair와 같은 일반적 이름이다. 이 аллеогории의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나 대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현실감이 있을지 모르나 18세기에 들어서 Daniel Defoe(1660-1731)와 Samuel Richardson(1689-1761)이 영국의 보통 사람들 의 실생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기 시작해서야 비로서 본격적인 사실주의적 소설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Defoe는 그가 쓴 이야기—예컨데 *Robinson Crusoe*(1719), *Moll Flanders*(1722)—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착각을 독자에게 주려고 애썼다. 그는 상인 출신의 평민으로서 18세기 당시의 신고전주의적 전통이나 문학 이론 등은 안중에도 없었고 자기 자신을 예술가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Robinson Crusoe*가 지금은 세계 문학에 속하지만 그 당시의 지성인 층에서는 아무 가치도 인정받지 못했다. “Defoe의 예술에 대한 관계는 모조품 제작자로서이지만, 그가 모조한 것은 예술 작품이 아니라 실제 경험의 복사였다(… the relation Defoe bears to the artist is that of the forger, but he was forging not works of art but transcripts of actual experience.)”라는 Walter Allen의 말은 그의 사실주의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²⁾ 사실주의라는 견지에서 볼 때 Defoe는 과히 영국 소설의 시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Defoe의 소설에는 현대 소설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미약했다. 그것은 플롯(plot)의 통일성이다. 그의 소설은 악한소설과 같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나는 여러 사건의 이야기를 사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각 사건, 에피소오드(episode) 사이에 펼연적인 인과관계나, 전체 얘기의 짜임새가 부족했다. 이 약점을 극복한 것이 Richardson의 *Pamela*(1740-1742)였고, 이 작품으로부터 진정한 소설이 시작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Derbyshire의 넉넉치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17세에 London에 있는 출판업자의 도제로 그의 직업 생활을 시작하여 출판인으로서 성공하였으며 그의 주인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가 소설가가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그는 일찍부터 편지 쓰는 습씨가 뛰어나서 소년 시절에 편지 못쓰는 하녀들을 위하여 연애 편지를 써 주곤 했었다. 그래서 그가 50세 때 두 출판업자로부터 모범 서간집을 만들어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 이 문집의 목적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일상사에서 옮바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고 그 속에는 “하녀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처녀에게 그녀의 미덕(즉 정조)을 노리는 올가미를 피하는 법을 가르치는” 편지도 여러 편 넣기로 되어 있었다. Richardson은 그가 들은 일이 있는 실화를 모델로 하여 이 주제를 얘기로 꾸몄다. 이것이 바로 *Pamela, or Virtue Rewarded*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간 형식을 취한 이 소설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아름답고 영리한 하녀인 Pamela Andrews가 섬기고 있는 마나님, Lady B.가 사망하자 그녀의 아들인 Squire B.가 온갖

2) *The English Novel*(Penguin Books Ltd., Harmondsworth, Middlesex, England, 1968), p.37.

수단을 다하여 Pamela를 유혹하여 그녀의 정조를 빼앗으려 하지만 Pamela는 슬기롭게 끝 끝내 그를 물리친다. Squire B.는 마침내 그녀의 슬기로움과 덕망에 감탄하여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무시하고 Pamela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이 소설은 나오자 마자 대 성공이였다. 현대의 독자에게는 별 볼일 없어 보이겠으나 그 당시의 독자에게는 매우 새로운 것이였다. 우선 Pamela가 Squire B.에게 정조를 유린당할 것인가, 안 당할 것인가 하는 서스펜스가 있었고 매우 박진감을 주는 심리 묘사와 통일된 플롯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짧은 신사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영국의 방방곡곡에는 교회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당시의 독자에 대한 또 하나의 호소력은 사회정의에 대한 평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는 대 있을 것이다. Pamela의 Squire B.에 대한 승리는 곧 양반 계급에 대한 평민 계급의 승리로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정의감은 이 당시 영국 중산 계급의 세력이 증대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영국 소설이 18세기 전반에 탄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Henry Fielding(1707-1754)의 소설 *Joseph Andrews*(1742)는 Richardson의 중산계급적 상업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쓰인 작품이다. Fielding에게는 Pamela의 도덕적인 교훈은 저속하고 이기적인 것으로 보였다. Pamela가 마음 속으로는 그 짧은 주인을 좋아하면서도 정식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에게 몸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진정한 이유는 순결을 지키려는 미덕이 아니라, 그녀의 정조에 대하여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대가를 얻어 내려는 장사속이며, 미덕을 가장한 일종의 매춘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실상은 *Joseph Andrews*에 앞서서 Pamela의 위선을 폭로하기 위하여 *Shamela*(1741)라는 Pamela의 파로디(parody)를 만들어 냈었다. 여기에서 위선의 가면이 벗겨진 Pamela의 모습인 Shamela의 야비하고, 음탕하고 교활하며 거짓된 본성이 적라라하게 폭로된다.

Fielding은 여러 모로 Richardson과는 대조가 되는 사람이다. Richardson은 평민 출신으로 고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반면에 Fielding은 양반 집안에 태어나 유명한 Eton교를 거쳐 화란에 있는 Leyden대학에서 수학하여 고전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Richardson의 성격이 수줍고 까다로우며 과묵하고, 키도 작고 똥뚱한 편인데 비해, Fielding은 훤칠한 키에 건장하고 마음이 탁 트이고 활력에 넘치는 사람이였다. 말하자면 한 사람은 내향적이고, 또 한 사람은 외향적이었다. 이러한 개성이 작품에도 반영되는 것이라면 영국 소설이라는 기차는 이 두 상반된 성격의 충돌과 견제력에 의하여 움지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ielding은 *Shamela*로 만족하지 못하고 *Joseph Andrews*에서도 Pamela를 비꼼기를 계속한다. 몹시 미남이고 체격 좋고 현명한 청년인 Joseph Andrews(그는 Pamela Andrews의 남 동생으로 등장한다)는 Sir Thomas Booby(Pamela의 남편인 Mr. Booby의 아저씨)집안의 하인으로서, 주인 양반이 별세하자 주인 마나님, Lady Booby를 모시게 되는데, 그녀의 끈질긴 유혹을 끝내 물리치고 정조를 지킨다고하는, 말하자면 Pamela의 상황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Pamela를 꼬집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기에는 Fielding은 너무 위대한 작가인 것이다. Fielding이 Richardson의 작품에 대해 느낀 반발은 그 값싸고 그릇된 도덕적 교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잡한 형식에도 있을 것이다. 가령 Pamela는 Pamela가 쓴 편지를 편집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지만, 그 많은 편지를 그렇게 상세히 쓸 시간과 재간이 Pamela

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Fielding이 *Joseph Andrews*에서 기도한 것은 이러한 비예술성을 극복하고 문학의 전통에 입각하여 하나의 새로운 문학 양식을 개척하려는 것이었다.

Fielding은 이 새 양식, 또는 장르(genre)를 이 작품의 서문(Prace)에서 “comic epic-poem in prose”라 부르고 있다. 당시의 신고전주의적 문학관에서는 모든 문학 양식 중에서 서사시가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인간의 영혼이 창조해 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것으로 존경받았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 와서는 서사시의 창조력이 쇠퇴하여 이렇다할 서사시가 출생하지 못했다. 위대한 당시의 시인 Dryden과 Pope도 서사시를 쓸 계획은 세웠으나 실제로는 아무 것도 남기지 못했다. 여러가지 사회 정세와 여건의 변화 때문에 서사시를 만들던 창조력은 딴 양식에서 그 표현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다. Fielding이 그의 최초의 소설을 “희극적 산문 서사시”라 부른 것은 다만 자기의 작품에 서사시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양식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물론 Fielding 자신은 자기의 작품을 소설(the novel)이라 부르지도 않았고 소설이란 용어를 자주 쓰지 않았다. 17세기나 18세기에 novel이란 말은 romance라는 말과 대비시켜서, romance(보통 부피가 방대한 산문 얘기)보다 길이가 짧고 사실적(realistic)인 이야기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가, 현재와 같은 뜻의 용어로 확장된 것은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이다.

그러나 Fielding은 사실주의적 소설의 잠재력과 시대적 요구를 간파하고 그것을 그의 첫 소설과 그 뒤를 이은 *Tom Jones*와 *Amelia*에서 훌륭히 실현시켰던 것이다. 특히 *Tom Jones*는 18세기 영국의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소설로 인정받고 있다. Fielding이 *Pamela*에 대해 느낀 반감 속에는 그것의 비예술성에 대한 것도 있었다. 그것은 그가 Defoe나 Richardson과는 달리 신고전주의자이며 오거스턴적 전통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Fielding은 소설에 고전문학의 예술성을 부여하기 원했을 것이다. art라는 말은 원래 예술이란 뜻과 동시에 인공적이란 뜻이였다. Defoe나 Richardson은 그들의 작품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나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의 기록이나 서신의 편집으로 가장했다. 따라서 사실주의를 강조하고 그것이 소설의 본질이라고 보는 견지에서는, 예술적인 것, 즉 인위적인 암시를 풍기는 Fielding의 소설은 Defoe나 Richardson의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Fielding에 리얼리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소설보다 못지 않게 사실주의적이다. 그러나 그는 사실주의를 고전문학적 이론으로 파악했다. 그것에 의하면 예술은 자연의 모방(imitation of nature)이다. 그러나 예술은 사진기처럼 개별적인 현실을 아무 수정 없이 베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체에 공통적인 것, 즉 일반성을 모사한다. 가령 호랑이를 그린다면 어떤 구체적인 호랑이가 아니라 모든 호랑이를 대표할 수 있는 호랑이, 즉 호랑이의 전형을 그리는 것이다. Fielding은 이와같은 취지를 *Joseph Andrews*의 서문에서, “모든 것은 자연이라는 책에서 베꼈으며, 나 자신의 관찰과 경험에서 얻지 않는 인물이나 사건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다(... everything is copied from the book of nature, and scarce a character or action produced which I have not taken from my own observations and experience.)”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이와같이 그의 인물의 사실성을 주장하지만, 그 사실성은 구체적인(particular) 사실성이 아니라, 신고전주의가 존중하는 일반적인(general) 진실이라는것을 제III권, 1장에서 다음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버릇을 묘사하며,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유형을 묘사한다. ... 여기

에 그려진 변호사는 지금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천년 동안도 살아온 것이다. (... I describe not men, but manners; not an individual but a species. The lawyer is not only alive, but hath been so these 4000 years. ...)"

realism이란 말의 출처인 real, 또는 reality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것, 즉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이 reality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의 반대의 개념은 추상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또는 환상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Plato와 같은 고전적인 견지에서는 real의 반대는 unreal보다 ideal이었다. 이것은 관념적이란 뜻보다 이상적, 전형적이라는 뜻이다. 즉 고전적인 견해로는 감각적인 존재, 즉 우리가 real하다고 보는 것은 ideal한 것의 반영, 즉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므로 오히려 unreal한 것이고, 진정한 reality는 ideal한 것이었다. 즉 reality에 대한 개념이 뒤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고전문학 이론에 반영되어 있다. 즉 Fielding이 그런 변호사는 18세기 영국의 특정한 장소에 살고있는 특정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실재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4000년 동안 어느 시대, 어느 곳의 변호사에게도 들어맞는 특성을 구현하기 때문에 real한 변호사라는 것이다. 사실 모든 예술 작품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인 것이다. 아무리 사실주의적 소설이라 할지라도 인물을 포함하여 거기에 재현되는 모든 것은 그 작가의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며 전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 문학관 때문에 Fielding이 그리는 인물들이 모두 생명력 없는 추상적인 이물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다. 가령 Adams 목사의 생명력과 우스움은 Fielding이 서문에서 주장한 우스움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못한다. 그는 "정말 우스운 것의 유일한 원천은 가장이다. ... 그런데 가장은 허영, 또는 위선이라는 두 원인 중의 하나로부터 온다(The only source of the true ridiculous is affectation. ... Now affectation proceeds from one of these two causes, vanity or hypocrisy.)"라고 주장하는데 Adams목사가 빚어내는 웃음은 허영도 아니고 위선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이 인물에 대하여 Walter Allen은 다음 같이 평한다:

Fielding의 희극의 근원은 때때로 가장에 있다. 이것은 Fielding에 의하면 허세와 위선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Joseph Andrews 중에서, 아니, Fielding의 그 어느 작품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인물은 Adams 목사인데 그는 순전히 유머의 산물이다. 아마도 그는 Don Quixote에서 얻은 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는 어떤 의미로도 독창적인 인물이며, 영국 소설의 원형적 인물 중의 하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의 비결은 Falstaff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느 비평의 공식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전망중이 심하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기를 좋아하며, 항상 배반당하면서도 인간의 선량함을 순진하게 믿는 Adams는 이 소설의 핵심이다.

The springs of Fielding's comedy are sometimes affectation, which according to Fielding arises either out of vanity or out of hypocrisy. Yet the most splendid character in *Joseph Andrews*, indeed in all Fielding, is Parson Adams, and he is a creation of pure humour. Perhaps he owes something to *Don Quixote*, but he is in every sense an original character, one of the archetypal characters in English fiction: and the secret of the pleasure he gives us can no more be reduced to a critical

formula than Falstaff's can. Adams, with his absentmindedness, his small pedantries and vanities, his naive trust in human goodness, which is always being betrayed, is the heart of the novel.³⁾

그 외에도, Joseph에 대한 연정과 숙녀로서의 자존심 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Lady Booby, 조잡하고 당돌한 Slipslop 여사를 비롯하여, 욕설이 능한 여인숙의 여주인 Mrs. Tow-wouse와 공처가인 그녀의 남편, 돼지인지 돼지 장사인지 분간 못할 Trulliber 목사, 음탕하나 인정많은 여인숙 하녀 Betty 등등 수많은 재미있는 인물들이 등장했다가는 사라진다. 이러한 인물들은 Fielding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한 부류의 인간으로서, E.M. Forster가 분류한 "flat character"일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현실감과 생동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Fielding의 신고전주의적 말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물들은 일반성보다 개별성의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개성을 통하여 일반성을 보여 주는 것이며, 우리가 이 작품 속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은 생명력이 넘치는 개인들이다.

*Joseph Andrews*의 예술성, 즉 인위성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것은 설화자(narrator)의 존재이다. 이 설화자는 소설의 무대와 독자 사이에 항상 개입하여 이야기의 진행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행위에 관한 논평을 직접 독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설화자의 존재는 작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을 꾸며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한다. 따라서 소설의 사실주의를 존중하는 견지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Defoe나 Richardson의 소설에는 설화자가 없고 주인공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는, 소위 1인칭 소설인데 비하여, Fielding의 소설은 3인칭 소설이다. 현대 소설에서는 3인칭으로도 현실감을 주는 기법이 발달했으나 초기 소설에서는 사실주의라는 관점에서는 3인칭이 1인칭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전주의적 관점으로는 예술은 만드는 것이고 소설은 작가의 기술로 인생을 예술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Fielding은 작가의 예술성을 설화자의 활동으로 나타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Andrew Wright도 이점을 다음 같이 설명하고 있다:

*Joseph Andrews*에서 저자는 가면을 쓴 설화자는 배우로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이며, 그가 꾸며내고 있는 것은 사실에 충실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단순한 사실 자체에는 충실히 않다는 것, 또 그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삶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라 삶의 변형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예술임을 독자에게 일깨워 준다.

In *Joseph Andrews* the narrator masquerading as an author is the player who ... reminds us that what he is telling is a story, that what he fabricates is for all its fidelity to nature ultimately and deliberately faithless to mere facts, that what he is offering is not a guide to life but the transfiguration of life which is his art.⁴⁾

이 설화자의 중요한 구실 중의 하나는 그의 익살스런 말솜씨로 독자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다. Ian Watt도 지적했듯이 소설의 문체에서 비유나 상징, 반어법(irony) 같은 시적인 수사법, 즉 말재간을 부리는 것은 리얼리즘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말솜씨 자체가 부각되서

3) Walter Allen의 전계서, p.56.

4) *Henry Fielding: Mask and Feast*(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ley and Los Angeles, 1966), p.15.

는 안 되며, 내용을 전달하는 순수한 매체이여야 한다.⁵⁾ 그러나 고전 문학에서는 말솜씨야 말로 문학의 본질이다. 따라서 Fielding은 설화자로서 그의 말재간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그의 말에는 기지(wit)와 장난기 어린 아이러니가 담기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작가 Fielding의 분신인 이 설화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 앞에 나타나서 익살맞은 말투로 독자를 즐기게 해준다. 사실 그는 이 소설의 중요한 등장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제II권, 1장에서 이 설화자는 책을 저작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권(Book)과 장(chapter)으로 나누는 이유에 관해서 논한다. 요는 저자가 책의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쓸데없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아무 학문적 확고한 근거가 없는 것이 너무나 뻔하다. 그러나 설화자는 무슨 대단한 이론이나 있는 것처럼 엄숙한 어조로 논술하다가 다음 같이 결론내린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장을 마치겠다. 즉 백정이 고기를 토막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자가 책을 나누는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독자에게나 고기 배는 사람에게나 다 같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I will dismiss this chapter with the following observation: that it becomes an author generally to divide a book, as it doth a butcher to joint his meat, for such assistance is of great help to both the reader and the carver.)” 그러나 독자는 그 진지한 말투와 표정 뒤에서 웃음을 얹누르고 있는 설화자의 모습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자의 반어적 말투는 등장인물들의 거동을 묘사할 때도 볼 수 있다. Lady Booby가 London의 Hyde-Park에서 산보할 때 그녀의 젊고 잘 생긴 하인 Joseph를 데리고 가는데, “피곤해지면(그런데 그녀는 쉴새없이 피곤해졌다) 그의 팔에 기대어 아주 친근하게 얘기를 주고 받았다(when tired, which happened almost every minute, would lean on his arm, and converse with him in great familiarity.)”라고 하고, 이어서 그녀가 마차에서 내릴 때는 언제나 Joseph의 손을 잡았는데, “때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의 손을 아주 꽉 잡았다(sometimes, for fear of stumbling, pressed it very hard:)”라고 시치미를 떼고 점잖게 묘사하고 있다(제1권, 4장). 독자는 물론 왜 Booby여사가 자꾸 피곤해지는지 알며, 그의 손을 꽉 잡는 이유가 “넘어지지 않으려고”가 아님을 뻔히 드려다 보면 속으로 웃고 있는 설화자의 점잔빼는 표정을 즐겁게 상상해 보는 것이다. 이런 묘사는 무수히 많지만 제I권, 12장에서 Joseph가 노상 강도를 만나 곤경에 빠졌을 때, 신사와 숙녀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그린 장면이 특기할만 하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의 예수의 우화, 착한 사마리아인을 각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Joseph는 강도에게 옷을 다 뺏겨 알몸이 된다. 지나가던 역마차에 겨우 구조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옷을 입혀 주려하지 않자 마부의 조수가 심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입혀주는데, 이 조수에 대해서 설화자는 팔호 속에서 “이 젊은이는 그후 닭을 훔친 죄로 식민지에 강제 추방됐다(a lad who hath been since transported for robbing a hen-roost)”라고 간략하게 주석을 부쳤고, 또 “그 심한 욕지거리 때문에 승객들에게 꾸지람을 들었다(for which he was rebuked by the passengers)”라고 또다시 팔호 속에서 설명을 덧부친다. 한 사람의 착한 청년을 도적으로 만들어 강제 추방하는 비정한 사회에 대한 비판은 팔호 속의 사소한 것 같은 주석 때문에 오히려 더 날카로워짐을 볼 수 있다. 두번째 팔호 속의 주석은 더욱 더 미묘한

5) Ian Watt의 전계서, pp.30-31 참조

아이러니이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시작될 때, 마부의 조수가 도랑 속에 발가벗은 남자가 앉아 있다고 보고하자 한 숙녀가 “제기랄!(O J-sus!)”이라고 욕지거리하면서, “발가벗은 남자라니! 마부 영감, 내버려 두고 빨리 갑시다(A naked man! Dear coachman, drive on and leave him.)”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 몰인정한 숙녀의 욕소리에는 아무 말도 없고, 착한 조수의 그것에는 야단치는 위선에 대한 비판이 자못 미묘하다. Fielding의 반어적 말솜씨는 이와같이 풍자적임을 주목해야 한다.

Fielding의 또하나의 중요한 말솜씨는 의사영웅체(mock-heroic), 또는 버얼레스크(burlesque)이다. 여기서 그는 Pope나 Swift 같은 오거스턴기의 풍자기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 자신이 *Joseph Andrews*의 서문에서 고전을 아는 독자를 즐겁게하기 위해서 버얼레스크를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 말솜씨는 하찮은 인물, 또는 사건에 대하여 고상하고 웅장한 말투를 씀으로써 그 부조화와 괴리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풍자하기에 좋은 수단이다. *Joseph Andrews*에서 좋은 예는, Booby 여사가 Joseph에 대한 욕정과 숙녀로서의 자존심 간에 겪는 갈등을 나타내는 다음과같은 독백이다: “이 격렬한 정열은 우리를 어디로 몰아 부치는가? 우리는 그 충동 때문에 어떤 천한 짓에 굴복하는가?(Whither does this violent passion hurry us? What meanness do we submit to from its impulse?)” Ronald Paulson도 지적했듯이 이 어리석은 Booby여사는 자기의 욕정을 미화시키고 자기의 고민이 마치 서사시의 여주인공 Dido의 것과 같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음을 그녀의 말투가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Fielding은 독자와 함께 비웃고 풍자하는 것이다.⁶⁾ 그 와 동시에 그 “천한 짓(meanness)”이란 말의 2중성(즉 정욕을 채우려는 천함과 사회 신분이 낮은 남자와 상대한다는 천함이라는 뜻)을 통하여 상류층에 대한 사회 풍자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말솜씨와 풍자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신고전주의, 특히 오거스턴기 문학의 특징인 것이다.

Fielding은 원래 대단한 풍자기였다. 그는 *Joseph Andrews*의 서문에서 “나는 연극에서 버얼레스크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I have had some little success on the stage this way:)”라고 밝혔듯이 풍자극으로 문필 생활을 시작했었다. 그가 처음 London에 정착한 1728년부터 1737년 사이에, 그는 당시 영국의 사회와 정치 풍토를 풍자하는 회곡을 20여 편 씀으로써 생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풍자극이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당시 수상 Walpole에 의해서 1737에 금지를 당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Fielding은 대학 시절에 했던 법률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1740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는데, 이때 *Pamela*가 나온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이 계기가 되여서 Fielding의 소설이 나왔지만, 만일 그의 연극의 풍자가 보잘것 없어서 금지당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소설은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Fielding은 *Joseph Andrews*, 제I권, 1장에서 오거스턴 시기의 대 풍자기들의 공격의 대상이던 Colley Cibber(즉 Pope의 *The Dunciad*의 주인공)를 빙정거림으로써 그 풍자기들과 맥을 상통하고 있음을 자처하고 있다. Ronald Paulson은 Fielding의 이와같은 자세를 다음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Fielding이, Richardson 및 Johnson과 동시대 사람이며, 1740년대와 1750년대의 작가로

6) Ronald Paulson, “Introduction,” *Fielding: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ited by Ronald Paulson(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 N.J., 1962), p.6.

생각하지만, 그는 오거스턴 시기의 풍자가, Pope와 Swift의 전통에 내놓고 참여함으로써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걸리버 여행기”가 나온지 꼭 2년 후에, 또 Pope의 “우자 열전”과 Gay의 “거지 가극”이 London의 문학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바로 그때에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Fielding은 Homer와 Virgil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작품을 이용했고, Scriblerus Secundus(악필가 제2세)라는 가명으로 대 오거스턴 문인들과의 연관을 명백히 함으로써 그들과 같은 우둔과의 싸움을 계속한 것이다.

Although we think of Fielding as a contemporary of Richardson and Johnson, as a writer of the 1740's and 1750's, he began his career by consciously and ostentatiously joining the tradition of the Augustan satirists, Pope and Swift. He began to write just two years after the appearance of *Gulliver's Travels* and at almost exactly the time when Pope's *Dunciad* and Gay's *Beggar's Opera* seized the imagination of literary London. Fielding drew upon these works as he did upon Homer and Virgil, and carried on the same war against dullness, making his association with the great Augustans unmistakable by the pseudonym *Scriblerus Secundus*.⁷⁾

Fielding은 말하자면 오거스턴적 풍자 정신을 소설로 구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소설의 형식에서는 Pope나 Swift보다도 *Don Quixote*의 영향을 받았다. 그것은 *Joseph Andrews*의 정식 제목, “The History of Joseph Andrews, and his Friend Mr. Abraham Adams. Written in Imitation of the Manner of Cervantes, Author of *Don Quixote*.”에 나타나 있다. *Joseph Andrews*가 *Pamela*의 희화화(parody)에서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Don Quixote*도 기사들의 무용담을 풍자하여 희화화한 anti-romance이다. Cervantes의 작품은 악한이 주인공인 악한소설은 아니지만 그것과 공통점이 많았다. 왜냐하면 악한소설도 기사 무용담에 대한 간접적인 풍자였기 때문이다.⁸⁾ 이러한 소설의 형식은 플롯의 짜임새가 산만하다. 대개 이러한 소설의 주인공은 어떤 확실한 목적지도 없이 여러 곳을 여행다닌다. 어떤 목적지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별 상관이 없고 가는 도중에 겪는 여러 모험과 체험이 흥미의 대상이 된다. 이런 형식은 여러 가지 인간의 결점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작가는 자유자재로 악인이나 선인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인간의 약점을 풍자하고 미덕을 칭송할 수 있다. *Joseph Andrews*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Don Quixote*와 *Sancho Panza*처럼 Adams 목사와 Joseph가 같이 여행하면서 겪는 모험을 통하여 Fielding은 여러 개탄할, 그리고 시정되어야 할 인간의 악덕을 독자에게 보여주고 풍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풍자는 다만 악인을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악덕을 교정하려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Fielding은 *Joseph Andrews*의 제III권, 1장에서 악인을 그의 소설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수많은 악인들이 각기 자기 방에서 거울에 비친 흉악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것을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함(to hold the glass to thousands in their closets, that they may contemplate their deformity, and endeavour to reduce it . . .)”이라고 말하고 있다.

7) Ronald Paulson의 전계서, pp.2-3. Pope, Swift, Gay 등은 *Scriblerus Club*라는 모임을 만들었으며, Pope는 이따금 *Martinus Scriblerus*라는 가명을 썼었다.

8) Frederick Olds Bissell, Jr., *Fielding's Theory of The Novel*(Cooper Square Publishers, Inc., New York, 1969), p.2. 참조.

따라서 Fielding은 악인들 뿐 아니라 Adams와 Joseph 같은 착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랑(charity)과 순결(chastity)이라는 미덕을 선양하는 것이다. M.C. Battestin은 *Joseph Andrews*의 주제는 이러한 도덕적 교훈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인간성에 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 즉 성악설과 성선설이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다. 성악설은 인간은 원죄 때문에 사악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성선설은 인간은 원래 태고난 착한 성격과 능력이 있어서, 그의 의지력을 올바로 발휘하여 의로운 행실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였다. 전자는 Calvin주의에 가까우며, 후자는 Pelagius(5세기 초의 영국의 수도사)의 설이다.⁹⁾ Fielding은 그의 첫 소설에서 이 Pelagianism의 도덕을 선양하고 있다. 이것은 제I권, 17장에서 Adams가 Barnabas와 토론하는 장면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여기에서 Adams는 “악덕하고 사악한 크리스챤보다는 착하고 덕망있는 터키인이나 이교도가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 더 용납될 수 있다(... a virtuous and good Turk, or heathen, are more acceptable in the sight of their Creator, than a vicious and wicked Christian)”라고 그의 신념을 밝힌다. Adams의 이 소신이 곧 Fielding이 이 소설에서 애호하는 도덕률이며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독자가 *Joseph Andrews*를 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는 도덕적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에 있다. 고전적 문학관에서는 문학의 목적은 교훈과 즐거움을 주는 데 있다고 일컬어진다. 그러나 18세기에는 교훈보다 즐거움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Joseph Andrews*의 재미는 앞서 언급한 재미있는 인물들에서 뿐 아니라 기타 여러 면에서 온다. 그중의 하나는 연달아 전개되는 희극적 장면들이다. Booby여사가 침실에서 Joseph를 유혹하는 장면(제I권, 5장 및 8장), 한 여인숙에서 Adams가 여인숙 주인과 격투하다가 여주인이 던진 돋지 피를 온 몸에 뒤집어 쓰고 Slipslop여사가 여주인을 멋지게 때려주는 장면(제II권, 5장), Trulliber가 돈을 빌리려 온 Adams를 돋지 장사로 잘못 알고 돋지 우리에 밀어 넣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소동(제II권, 14장), Joseph가 사냥개들과 싸우는 일대 혈전(제III권, 6장), 고약한 지주 양반이 Adams를 여러모로 꿀려주는 장면, 그리고 Booby여사의 저택에서 주요 등장 인물들이 다 함께 하룻밤을 자개 될 때, Adams가 그 특유의 순진성과 부주의 때문에 발가벗고 Slipslop여사의 침실에 뛰어들어 그녀와 격투를 벌이는 장면(제IV권, 14장) 등은 모두 통쾌하고 우습고 인상적이다. 그 외에도 재미나는 장면이 쉬지 않고 계속된다. 이 소설의 생명은 잘 짜여진 플롯보다 이런 장면이 연달아 전개되어 독자에게 후련한 웃음을 주는 데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희극적 장면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은 생생한 대화(dialogue)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Fielding은 능란한 극작가였기 때문에 연극 무대의 대화를 쉽게 소설로 옮길 수 있었으며, 그가 영국 소설에 기여한 가장 큰 공헌이 바로 이 생생한 대화이다. Fielding 이전 까지의 영국 소설의 가장 큰 약점은 대화였다. Defoe의 장점은 객관적인 보도에 있었고 대화에 있어서는 대단히 미약했다. 차라리 *Pilgrim's Progress*의 대화보다 못했다. Swift의 이야기에서는 아예 대화를 쓰지 않았다. Richardson의 소설은 서간체로 되어 있으니 대화를 살리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답답한 영국 소설의 분위기에 시원하고 발랄한 대화를 주

9) Martin C. Battestin의 편집한 *Joseph Andrews*(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67)의 Introduction, pp.xxiii-xxiv 참조.

입함으로써 인물과 장면을 생동케 하고 소설이라는 형식에 생면력을 불어 넣은 것이다. 그의 인물의 대화는 활발할 뿐 아니라, 각 인물에 특징적인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그 말투만 들어 봐도 그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대화로써 인물 묘사(characterization)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Fielding의 번쩍이는 기지와 능란한 말솜씨에 바탕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Fielding은 이러한 기지와 말솜씨에 있어서 오거스틴 시기의 풍자작들과 상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그중의 하나는 사회의 상류층, 즉 귀족이나 지주 양반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다. Joseph Andrews에 등장하는 양반들은 (Wilson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나쁜 인간들이다. Booby역사를 비롯하여, 알몸이 된 Joseph를 역마차에 못 타게 거부하는 위선적인 숙녀(제I권, 12장), 거짓 약속으로 Adams 일행을 놀려주는 양반(제II권, 16장), Adams와 Joseph를 침대에 묶어 놓고 Fanny를 강간하려는 총각 지주(제III권, 9장), Joseph와 Fanny를 부당하게 투옥하려는 Frolick 치안판사(제IV권, 3장), Fanny를 겁탈하려는 기생오라비같은 Didapper(제IV권, 7장) 등등 모든 상류층 인간들은 고약한 악인들이다. 이에 반해서, Joseph에 자기 외투를 입혀주는 마부 조수(제I권, 12장), 부상당한 Joseph를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여인숙 하녀 Betty(제I권, 13장), 무일푼이 된 Adams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상인(제II권, 15장) 등은 모두 가난하고 무식한 하류층 사람들이다. 또한 설화자는 이 이야기의 초두(제I권, 2장)에서 Joseph의 족보를 따지면서, “아무 미덕도 없이 조상의 명예를 누리는 자들이 허다한데, 조상이 없다고해서 명예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는가? (Would it not be hard that a man who hath no ancestors should therefore be render'd incapable of acquiring honour, when we see so many who have no virtues, enjoying the honour of their forefathers?)”라고 사회 계급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있다. 따라서 Fielding은 그의 첫 소설에서 상류층 인간들보다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더 홀륭하다고 하는 민주주의적 사회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Brian McCrea가 지적한 것처럼 Fielding은 민주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다.¹⁰⁾ 그의 말대로 Joseph는 결국은 양반의 아들이고, 이야기의 끝에서 그에게 많은 돈을 선사하고, Adams 목사에게 좋은 보직을 줌으로써 미덕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은, 결국 양반 계급인 Mr. Booby인 것이다. Fielding 자신도 신분이 높은 편이였고 후에 London의 Westminster 지구에서 치안판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중시하고 그 질서를 위해서는 사회의 계급이 필요함을 인정했었다. 그것은 Plato 이후로 존재해 왔고, 그 당시 가장 뚜렷이 부각되었던, 거대한 존재의 사슬(the Great Chain of Being)의 사상에 바탕을 둔, 매우 오거스턴적 신조였다. Pope의 “인간론”(*An Essay on Man*)이 이 사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질서는 하늘의 첫째의 법칙(Order is Heaven's first law)(제IV신, 49행)”임을 강조하고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가 자기에게 정해진 자리를 지켜야하며, 인간 사회도 계급이 있어야하고 이것을 파괴하면 무질서에 빠진다고 역설하고 있다. Joseph Andrews의 제II권, 13장에서 영국의 사회 계급을 사다리로

10) Brian McCrea, “Rewriting Pamela: Social Change and Religious Faith in *Joseph Andrews*,” *Studies in the Novel* 16(1984): pp. 137-49. Homer Goldberg가 편집한 Norton Critical Edition의 *Joseph Andrews*에 전재된 부분의 p. 486 참조.

비유하고(survey the picture of dependence like a kind of ladder), 존재의 사슬의 사상을 비웃고 있는 듯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높은 신분인척하는 자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인간들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Fielding이 비난하는 것은 모든 상류층 특권계급의 인간이 아니라, 그 자리를 누리면서도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 사회 전체에 공헌을 하기는커녕, 해를 끼치는 양반들이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비판은 오거스틴 시기의 풍자작들에 공통적인 것이였다. Pope의 *The Dunciad*, 제4권, 580-600행이나, Swift의 *Gulliver's Travels*, 제4부, 6장에서 Gulliver가 말의 주인에게 영국 사정을 설명할 때의 귀족에 대한 언급 등이 그 예이다. 그들도 모든 특권층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귀족, 고관, 양반들을 공격한 것이다. Fielding은 이러한 사회 계급의 인식에 있어서도 오거스틴 시기의 풍자작들과 시각을 같이 했던 것이다.

오거스틴 시기의 풍자작들은 기독교적 휴머니즘(Christian humanism)의 전통을 이어 받은 사람들이였다. 기독교적 휴머니즘은 간단히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의 윤리 도덕 사상을 기독교에 융합시켜,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인간의 구원과 행복에 이바지하려는 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Philip Sidney, Edmund Spenser, John Milton 등이 이 사상의 선구자들이다. Fielding은 Adams 목사 속에 이 사상을 구현시켰다고 볼 수 있다. Adams 목사는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고전적 학문에도 조예가 깊으며, 온갖 악인의 수모를 받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자비심을 잊지 않는 기독교적 휴머니스트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그는 어떻게 보면 Don Quixote처럼 인간 사회의 현실에 어두운 이상 주의자이다. 그의 우스움은 그의 이상과 인간의 현실 간의 괴리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이 바로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기준인 것이다. Fielding은 Adams 목사와 같은 인물을 통하여 즐거움과 교훈이라는 고전 문학의 이론을 실현시킨 것이다.

Fielding은 Defoe나 Richardson같은 뿌리 없고 도덕성도 의심스러운 사실주의적 문학에 고전 문학의 예술성을 주입하여 그것을 변질시켜서, 그가 comic epic-poem in prose라고 부른, 새로운 문학 양식을 탄생시킨 것이다.